

“화랑의 정신 이어 삶의 주인 되기를...”

파라미타청소년 경주서 전국 연합캠프... 유적답사 수상활동 등 청소년들 열광

한국불교의 미래인 전국 청소년들이 화합과 교류의 어울림 한마당을 펼쳤다.

청소년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 제 12회 파라미타청소년 전국 연합캠프가 7월 20~23일 경주 보문청소년수련원 및 경주 일원에서 개최됐다.

설립 13주년을 맞이한 파라미타(회장 도후)는 ‘화랑의 기상 파라미타!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불교문화유적을 참배하고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고 배우는 장을 마련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감염 확산으로 적은 인원이 참가할 것이라는 주최측의 예상과는 달리 200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더 모여 1400여 명이 참가해 프로그램 운영과 숙소 확보 등에 약간의 차질을 빚기도 했다.

캠프의 첫날인 7월 20일 저녁 입재식에는 연두색, 하늘색, 보라색 등 공개 전통 복색의 단복을 입은 전국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야외공연장 앞에 모였다. 입재식에는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총재 혜승 스님, 파라미타 회장 도후 스님, 파라미타 초대총재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 부명 스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이사장인 스님 등이 함께했다.



경주 불국사에서 문화해설사와 함께 사찰순례를 하는 청소년들(왼쪽), 친구의 팔목 굵기에 맞춰 합장주의 매듭을 지어 주고 있는 모습(오른쪽).

도후 스님은 대회사에서 “계종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해 단결된 힘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에 크게 이바지했던 화랑의 정신을 본받아 스승과 제자, 친구 간에 배려하는 마음과 아껴주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생활로 이번 연합캠프가 성공적으로 회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둘째 날부터 진행됐다. 문수분단, 보현분단, 관음분단 등 3개의 분단이 신성한 문화유적 답사, 유적답사활동, 사찰 순례 등을 순차적으로 체험했다. 교리퀴즈, 컵 등 만들기, 합장주 만들기 등의 신성한 활동, 경주남산·분황사·안압지

등 유적답사, 불국사·석굴암 사찰순례,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의 특강, 청소년 백일장 등이 열렸다.

신성한 문화유적이 한창인 현장에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차분한 광경이었다. 고학년들은 컵 등이나 합장주 만들기에 익숙한 모습이었고 저학년들은 어렵기도하고 신기한 체험에 푹 빠졌다.

서대원(제천 대제중학교)은 “처음으로 합장주와 컵등을 만들어 보면서 조금 어려웠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 즐겁고 신기하다”며 즐거워했다.

경주 불국사에서 진행된 사찰순례에는 문화유적해설사가 동행했

다. 무더운 날씨에 많은 인원이 함께 다니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지쳐있지만 해설사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범어사에서 온 정희택(고2)군은 “매년 오는 곳이지만 불국사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인 설명을 듣고 법당 참배하니 느낌이 새롭다. 무엇보다 여러 지역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22일 축제의 날에는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감포 오류해수욕장의 수상활동, 음악놀이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음악놀이페스티벌에서는 청소년들의 경연대회로 대상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그 밖에도 자율선택활동으로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진행된 아침예불에는 7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어 아담법석을 이루기도 했다.

부명 스님은 “장마철에 신종인플루엔자의 염려에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낸 만큼 실무자를 비롯한 봉사자들이 열심히 뛰었다”며 “불교의 희망이고 한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경주 천년 고도의 자리에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Hi! Hi! 토요영어법회

국제포교사회, 8월 1일부터 법회 시작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가 조계사와 인사동, 고궁의 문화벨트를 국제포교의 전진 기지로 삼고 토요영어정기법회를 시작한다.

국제포교사회는 8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4-6시 조계사 건너편에 있는 템프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외국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요영어법회(Saturday Dharma Group)를 시행한다.

법회는 참선, 예불, 법문, 신행체험, 문화체험, 문화유적 답사, 사찰순례, 친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박상필 회장은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와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어 토요영어정기법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8월 1일 첫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중 스님의 특별법문이 열릴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대불동, 군포교 활성화 시동

20여 명 법사진 갖추고, 군법당 지원

한국대학생 불교총동문회(회장 명호근, 이하 대불동)가 군포교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쳤다.

대불동은 일부 대불련 출신 포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한 경우와는 달리 20여 명의 법사진을 갖추고 법사가 없는 부대의 법회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법사진으로 활동할 동문회원들은 스님을 비롯해 교육, 법률, 의료, 경제,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장병들에게 기존의 법회와는 차별화된 법회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불동은 이와 관련 7월 19일 서울 내방동 법당에서 ‘군포교 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군포교지원단 박호석 단장은 “군종이 파견된 지 41년이 됐지만 한 해 군포교 예산이 개신교 100억대, 가톨릭 30억대인 반면 불교는 고작 3억 원임에도 최근에는 논산훈련소에서 법당을 찾는 신병들이 교회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며 “공병여단 법왕사도 지난 1년간 법회를 지원하다 보니 교회보다 신도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단장은 “잠재하는 지성분자인 대불동 회원들을 군포교 현장으로 이끌어내 조직의 활성화와 더불어 불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전, 현직 교사(교수) 동문은 꼭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포교지원단은 7월 넷째 주말부터 전방 육군 제1사단 12연대 무선사법당 등 총 11개 부대 법당을 대상으로 법사지원, 공연지원, 간식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금년 하반기에는 1군단 지역에서 법사가 없는 제1공병여단 등 7개 군법당에서 일반법회를 지원하고, 제1사단 등 4개 사단 신병교육대를 대상으로 공연법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02)720-1963

이상연·박선주 기자



명호근 회장(오른쪽)이 군포교지원단 박호석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신행기시판

- 위빠사나 수행법회 동행**=상좌불교한국명상원은 8월 9일 오후 2시에 대구 구도회에서 제 30회 대구 위빠사나 수행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묘원 법사가 지도하고 위빠사나 법첩처 법문, 경행, 좌선, 면담 순서로 진행된다. (02)512-5258
- 7일 옹맹정진**=부산 여래선원은 8월 11~19일 오후 8시부터 화명동 여래선원에서 옹맹정진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7만5000원으로 간편한 참선복과 세면도구, 바투를 준비하면 된다. (051)362-0339
- 여름수련대회**=강릉 성원사는 8월 1~4일, 8월 30일~9월 2일 성원사 정종전에서 여름수련대회를 실시한다. 예불, 참선, 경전 공부, 사경, 발우공양, 묵언 등의 수행생활을 스님들과 함께 진행하며 고등학생 이상 성인 남녀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참가비는 3만원이다. (033)661-5736
- 2박3일 집중 수행**=제마나와 선원이 일일수행, 토요집중수행, 월야정진의 단기 수행에서 일정기간 집중적 수행으로 한 단계 심화된 수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7월 30일~8월 1일, 8월 6~8일, 13~15일 선원 일반 4만원, 운영회원 및 대학생은 3만원이다. (02)595-5115

반갑다연우야, 국경 초월 행복 지원

몽골 대학생에 장학금

불교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가 국경을 초월한 나눔을 실천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부설 불교의료봉사지원단 ‘반갑다 연우야’(단장 구자선)는 7월 23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관에서 몽골 대학생 3명에게 장학증을 수여했다.

이전에 선발된 장학생은 지난 5월 마하의료회와 반갑다연우야가 진행한 ‘행복한 몽골인을 위한 해외 의료 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학생들로 어트 후(몽골과학기술대학교2학년, 한국명 태수), 어트공 바타르(몽골 징기스칸대학교2학년, 한국명 민수), 나자르갈(몽골과학기술대학교3학년, 한국명 화성) 3명이다.



반갑다연우야는 7월 23일 중앙신도회에서 몽골 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황재훈 봉사단장은 “국적을 떠나 집안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중단해야 하는 학생들의 현실이 낯설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발전해서 주변을 변화시키고자하는 마음이 대견스러웠다”고 전했다.

몽골 후원계좌 : 농협 301-0020-2041-01 (새날마다 좋은날) (02)732-7272

박선주 기자

박동훈 회장 취임

대구불교약사회 새출발

대구불교약사회가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새출발을 다짐했다.

대구불교약사회는 7월 22일 저녁 대구불교회관 만보전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갖고 수석부회장을 맡아온 박동훈(법명 원산·사진) 포교사를 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박 회장은 “정법의 지혜를 닦고 보살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대구불교약사회는 지난 2005년 100여명의 약사를 중심으로 창립해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손범천 대구지사가



불교노인요양원 삼천사·인덕원이

어르신을 모십니다




불교전문노인요양원 인덕원이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해동의 영산으로 불리는 북한산 자락에 기존 건물을 신개축하여 국내 최대의 300병상 규모와 최첨단 시설, one-stop 토탈케어서비스를 갖춘 노인요양종합복지타운을 세워 어르신을 모십니다.

인덕원은 분야별 전문교육과 불심을 두루 갖춘 15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맞춤형 케어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입소어르신을 부처님처럼, 내 부모님처럼 섬깁니다.

인덕원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보살행으로 실천하여 어르신과 가족의 아픔은 나누고, 행복을 만드는 불교전문노인요양원입니다.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받으신 분

■입소문의 : 02)385-8205, 02)3156-7500

삼천사·사회복지법원 인덕원

서울 은평구 진관동 250(은평뉴타운지역 내)

www.idw.or.kr